



## 광복 70주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려면



### 포커스①

#### 광복 70주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려면

몇 차례 '맵짠'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 싶더니 어느덧 봄이 다가왔다. 이제 새싹이 움트고 산과 들에 꽃이 흐드러질 채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와 한반도 ...

[더보기 →](#)



### 포커스②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통일 돋보기

남북한 인구차이 2배, 소득격차 21배



### 통일을 여는 사람들

남과 북은 통일을 이뤄야 할 '영원한 동반자'



### 통일Talk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이 멋진 통일!



### 행복한 동행

장대현학교 아이들의 행복버팀목이 되어줄래요!



### 골든벨, 빛 이야기

중학생들에게 역사통일퀴즈왕은 호기심 천국!



Today남북  
연인사이 최고의  
인기 짝 선물은 핸드폰?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40살에 남한 왔는데  
'인생은 100세 시대래요!'



평화통일 대토론회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느낌 있는 여행  
대구광역시  
근대화골목투어



통일 웹툰  
전 세계 여성을 사로잡은  
한복 드레스! 인기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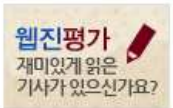
통일 레시피  
봄맛이 '밝은쟁이볶음'



이벤트 당선작  
할머니의 소원인 통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1. 통일한반도 청사진을 그리다  
2. 북한말 알아보기





## 광복 70주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려면

이 영 중 통일전문기자(중앙일보)

몇 차례 ‘맴뎀’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가 싶더니 어느덧 봄이 다가왔다. 이제 새싹이 움트고 산과 들에 꽃이 흐드러질 재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팽팽 얼어붙어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할 것을 호소했지만 북한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정세문제를 빌미삼아 대화의 문을 팽팽 닫아 건 형국이다. 이러다가는 당분간 남북관계 정상화의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통일준비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려면 치밀한 전략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를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통일준비의 구심체를 자부해온 민주평통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란 민주평통의 소명의식에 국민 모두의 염원이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통일준비의 실질적인 추진 조직으로서 민주평통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민주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통일한국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뒷심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15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의지와 실천력이 요구된다.

첫째는 거대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어젠다의 제시다.

둘째, 구호나 말보다는 행동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나 대북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2015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의지와 실천력이 요구된다. 또 국민여론이 적극 반영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청사진과 실천계획이 제시돼야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거대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어젠다의 제시다. 그 동안의 통일논의나 준비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보니 경작 남북통일 과정에서 맞닥뜨릴 여러 문제에 대한 연구나 해법은 미흡했다. 이젠 통일을 위해서는 정말 꼼꼼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할 국민공감형 로드맵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통신체계와 기기를 쓰는 남북한 핸드폰은 어떻게 통하게 할 수 있고, 컴퓨터-핸드폰 자판은 통합을 어찌할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구호나 말보다는 행동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중장기적인 구상이나 대책 없이 일회성 이벤트나 캠페인에 머무는 통일준비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 통일준비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셋째, 남북관계나 대북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이 지속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 주도의 통일노력에 대해 수세적으로 방어하면서, 대남 선전선동을 통해 남남갈등을 꾀하는 상황에서 이런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통일원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통일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과 다양한 관련 체험활동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통일인식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세대 간의 이념과 가치관 격차를 줄여나가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노장년층이 어우러질 세대공감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파와 이념·세대 등을 뛰어넘는 국민통합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부해온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일원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남북 통일의 당위성을 넘어선 실질적 편익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측면에서다. 사실 탈냉전 이후 통일이란 용어는 높은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잘못 받아들여졌다. 그러다보니 통일준비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다음으로는 통일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과 다양한 관련 체험활동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통일인식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세대 간의 이념과 가치관 격차를 줄여나가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노장년층이 어우러질 세대공감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파와 이념·세대 등을 뛰어넘는 국민통합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부해온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다"며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진정한 광복은 분단의 종식에 있다는 취지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를 통일한국 원년으로 삼아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다는 민주평통의 구상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처럼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마음 속에 통일준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분단 70년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과 비용을 강요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국민 염원에도 불구하고 통일실현은 요원한 듯 보였고, 일각에서는 자칫 분단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의 도입을 곧 체제붕괴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체제와 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대치국면이 장기화 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이어질 때면 '정말 통일이 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통일과정에서 국가지도자의 각별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성원이 핵심요소라는 점은 독일통일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은 동서독 시절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門)을 거론하며 "브란덴부르크문이 닫혀 있는 한 독일문제는 열린 채로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열정과 통일에 대한 집념은 독일 통일의 토대가 됐다.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은 올해를 통일원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곱씹어볼만한 말이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월 25일(수)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4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정치·경제·안보·국제관계 등 각 분야 남북관계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집중토론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이에 따른 통합 및 통일준비방안을 도출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환영사에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는 북한과 주변국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라며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북한의 변화, 통일에 대한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보탬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 1세션 : 점진적 변화의 전망과 통일준비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은 '점진적 변화의 전망과 통일준비'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 김병연 교수 “사람, 자본, 제도는 점진적인 준비의 핵심”



▲ 김병연 교수(서울대)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연 교수(서울대)는 먼저 탈북대학생과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분단 70년 동안 남북 간에 상당한 의식의 변화가 있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통일준비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는 대비하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의 통합만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통합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동반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남북통합이 북한의 체제이행을 촉진하고, 북한의 체제변화가 통합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눈 다음, 여기에 남북 '경제통합' 단계를 준비기, 시작기, 진행기 및 완료기로 조응시켜 설명했다.

먼저 '체제이행'의 초기단계는 집단농장을 가족농으로 전환하고, 계약책임제 혹은 일종의 준조세제도를 도입하며, 잉여 농산품이나 공산품에 대해 교환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또한 남북 '경제통합'의 준비기인데, 빈곤구제, 생산능력 확충, 인적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 단계로, 특히 생산능력 확충의 경우 전반적 지원보다는 제한된 특화지역에 새로운 생산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체제이행' 중기는 '경제통합' 시작기인데, 이 시기에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자본개발 투자 등이 들어간다. 이어 '체제이행' 후기 및 '경제통합' 완료기에 이르면 구체적인 정책 및 법-제도적 통합이 이뤄지고 화폐까지도 통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통합에 이르게 되면 남과 북이 이 단계에 머물지, 정치적으로 단일국가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남과 북이 역사적 문화적 단일국가였고 정치적 통합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한다면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김병연 교수는 사람, 자본, 제도는 점진적인 준비의 핵심이라며, 특히 북한의 인적 자본의 육성은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통합에 있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치적 변수에 대한 고려 필요

김병연 교수의 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면서도 남과 북의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제성호 교수(중앙대)를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해 경제적 통합을 이룬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도 정치적 다이내믹스(dynamics, 동학)라는 영역에 대한 사전 고



▲ 제성호 교수(중앙대)



▲ 김근식 교수(경남대)

려가 없을 때는 이 모든 그림이 한 순간에 어

그러질 수 있다며, 북한의 체제이행이나 경제통합에 있어서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의 가능성이 모두 반영 될 때 시나리오가 보다 정교해 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박인휘 교수(이화여대)는 최초 순간에 모멘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후 북한이 통일친화적인 국가로 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는 체제이행 초기단계 이후 북한의 변화나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을 때 체제이행 및 경제통합의 단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경제통합과 정치통합, 즉 통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다만, 비용을 최소화하는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수준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일 뿐, 이것이 곧 통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적 통합은 경제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경제적 통합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맞는 정치적 요건이 뭔가를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환기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

##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위해 시장확대와 지속가능한 견인력 필요

고상두 교수(연세대)는 북한의 체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지속적인 개혁개방이 가능하고 성공적인 남북한 경제통합도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환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현재 북한의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시장이 너무 커지고 정보가 너무 확산되면 폐쇄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시장경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고상두 교수(연세대)



▲ 유호열 교수(고려대)

유호열 교수(고려대)는 원하던 원치 않든 북한이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수용하게도록 동기부여(motivation,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북한 지도자가 시장경제를 차선 혹은 차차선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 인민들에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성기영 박사(통일연구원)는 기존의 통합 사례는 대부분 어느 한 쪽의 압도적 견인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며, 한국이 설득적인 방식을 통해 통합을 위한 견인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2세션 : 전반적 변화의 전망과 통일준비

2세션은 박찬봉 사무처장의 진행, 김진하 박사의 발제로 진행됐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1세션에서 다룬 '점진적 변화'는 경제적 변화를 먼저 이룬 뒤 정치적 변화를 이뤄나가자는 것이고, 2세션에서 다루게 될 '전반적 변화'는 시장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도입할 경우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변화를 가져온 후 성과를 내서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전반적 변화를 일반적인 흡수통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 김진하 박사 “전반적 변화 돕는 북한 엘리트 육성 필요”

김진하 박사는 북한 체제의 속성이나 국제정세의 흐름을 볼 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변화, 또는 돌발적인 상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를 동시에 되도록 신속하게 이행하는 전반적 변화, 즉 플랜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 박사는 일반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이 카운터엘리트로 시민사회에 존재할 때 전반적인 변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와는 달리 루마니아나 폴란드처럼 상황에 따라 개혁파로 활동할 수 있는 보수수구파들이 변화를 위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플랜B를 착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경우 개혁적 성향의 존재들이 관료층 내에 파편화된 상태로 있으며, 북한 내 급변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이들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체제이행 및 평화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관여하는 북한 내 체제이행 주도세력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김진하 박사(통일연구원)

김 박사는 정치개혁을 3단계로 나눴다. 첫 번째 단계는 중앙집권적 비상통치로, 군대나 핵무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당과 국가를 전면적으로 분립시키고 책임공무원제 등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조금씩 도입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안정화단계에서는 완벽한 민주주의 선거를 도입하고, 북한에서 엘리트들이 민주화를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치개혁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내 개혁 추진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플랜B사태시 폭력사태 대비해야



▲ 김용호 교수(연세대)

김진하 박사의 발제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무엇보다 폭력사태를 막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수훈 교수(경남대)는 급진사태발생 시 군이 주도가 되어 대응하게 되고,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의 성격과 역할, 임무의 범위 등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제성호 교수는 플랜B 상황의 경우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중, UN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김용호 교수(연세대)도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중국의 거부감 해소 차원에서 UN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영 박사는 북한의 급진적 변화를 안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엘리트는 의회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기존 등독의 집권당이었던 PDS가 통일 후 의미 있는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음을 고려하여, 양원제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철 박사는 북한에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북한의 새로운 정권을 친한국화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동시에 한국에 유리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같이 마련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성기영 박사(통일연구원)

##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일준비'



▲ 김석진 박사(통일연구원)

한편 '플랜B'의 필요성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통일준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운영 교수(중앙대)는 플랜B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준비도 필요하나, 북한의 변화를 위한 우리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논의의 방점은 통일준비에 뒤야 한다고 말했고, 김석진 박사(통일연구원)는 북한변화의 주체는 북한이므로 남한은 돕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 인적자원 육성보호를 위한 협력사업, 그리고 농업, 환경, 보건의료, 교육분야 협력 등이 통일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교수는 플랜B에서 북한주민, 엘리트들을 각성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UN 동시가입 문제 등 현재 남북한의 국제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도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통일준비위원회 국제자문단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남북한 인구차이 2배, 소득격차 21배



70년 전 남한과 북한은 하나였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각종 지표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사회경제 각 부문에서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지요. 이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4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봅니다.



## 남북한 인구

2배



남한

5,022만명



북한

2,454만명





## 남북한 경제총량



명목  
GNI



1인당  
GNI



## 남북한 대외거래





무역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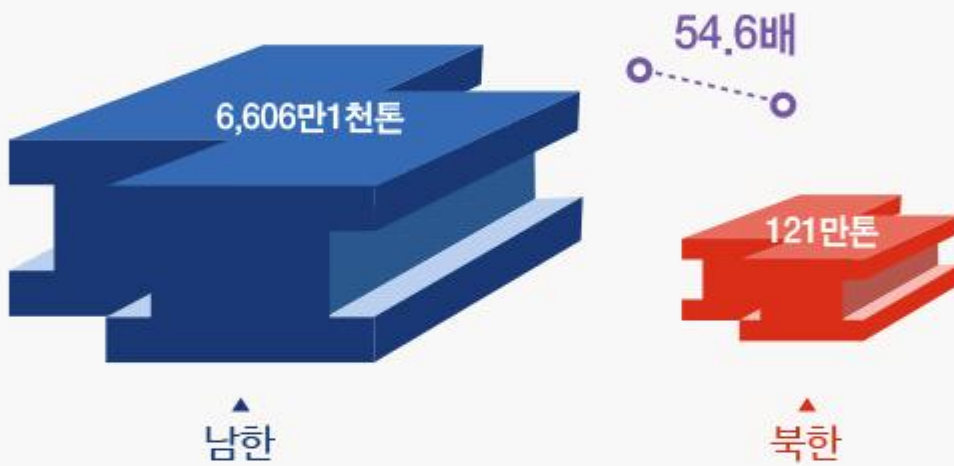
수출 총액



수입 총액

## 남북한 광공업

### 조강 생산



### 시멘트 생산





# 남북한 에너지

## 발전설비 용량

8,696만9천KW



▲  
남한

12배



724만3천K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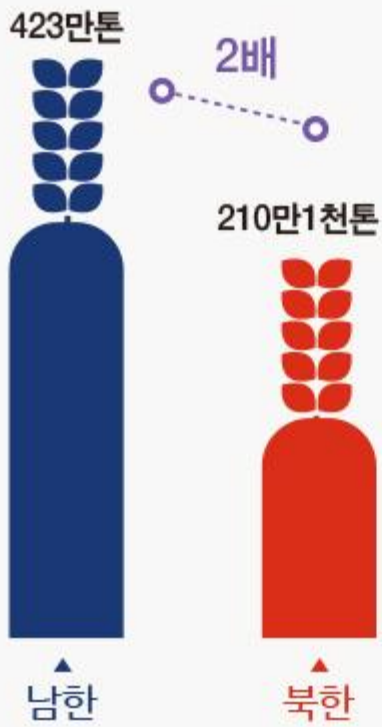


▲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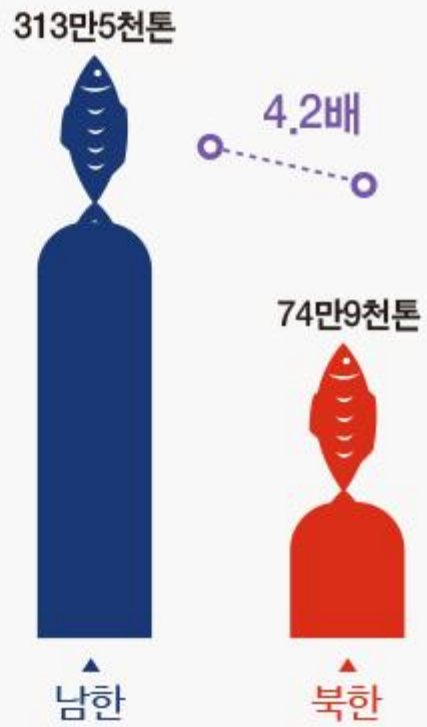


# 남북한 농수산업

## 쌀 생산량



## 수산물 생산량



<자료. 통계청>



가수  
**태진아**

가수 태진아 씨(대한가수협회 회장)는 북한주민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1순위 한류스타'다. 모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출연자는 북한에 있을 때 태진아 씨가 자신의 이상형이었다고 밝혔을 정도. 또 북한 관련 한 매체에서는 북한 무역업자들이 중국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를 부를 때 18번으로 태진아 씨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즐겨 부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그의 노래가 화제가 된 것처럼 최근 태진아 씨는 탈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탈북민들을 위한 행사에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탈북민정착지원 홍보대사, 탈북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올해로 가수 데뷔 44주년을 맞은 태진아 씨는 '옥경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미안 미안해', '거울도 안보는 여자', '노란손수건', '사모곡'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 '2015사랑타령'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한가수협회 회장, 엔터테인먼트사 회장 등을 맡아 원로 가수들을 돕고 실력있는 후배 가수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여러 홍보대사직을 맡아 공익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가수답게 태진아 씨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재능기부 공연은 물론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에 참여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노래 제작비(로고송) 전액을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기부하는가 하면, 디너쇼 수익금을 생활이 어려운 원로 가수들을 위해 전액 내놓기도 했다.



이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태진아 씨는 작년 7월 강남경찰서의 탈북민 정착지원 홍보대사를 맡아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활동에 나섰다. 특히 올 2월에는 탈북 대학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강남경찰서에서 북한이탈정착지원 홍보대사직을 제안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어요. 어렵게 남한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가고 있는 탈북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동참하고 싶어요. 앞으로 탈북청소년들은 남북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겁니다. 이들이 학업에 정진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 통일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적 공감대 필요

가수 태진아 씨가 북한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9년 12월 5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린 '2000년 평화 친선 음악회'를 통해서다. 남한 측에서는 태진아, 패티김, 최진희, 설운도, 핑클, 잭스키스 등이 참가했으며, 북한 측에서는 '휘파람'으로 유명한 전해영과 여러 인민배우 및 공훈배우들이 참가했다. 2천여 명의 관객이 자리한 이 공연에서 당시 태진아 씨는 벽차오르는 감정을 눈물로 전하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

2004년 태진아 씨는 통일음반 'Love(사랑)' 녹음을 위해 이승철, 김건모, 이효리, 세븐 등 유명가수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합창하기도 했다. 당시 통일음반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남북한 화합 캠페인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평화, 통일, 자유의 메시지를 노래에 담았으며, 음반 판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를 돕는데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음반녹음에 참여했던 태진아 씨는 "노래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다"며 "문화교류로 통일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2006년도에는 북한이 자신의 노래 '사모곡'을 비롯해 총 20곡의 한국 가요를 해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에 음반 보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중예술인으로서 남북간의 문화교류에 일조를 해야 합니다. 돈과 품이 드는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앞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문화적 공감대가 필요하거든요.”

태진아 씨의 노래 중 ‘사모곡’은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주기도 했다. 사모곡은 태진아 씨의 개인적인 아픔이 담긴 곡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당시 도미 3개월만에 어머니의 부고를 듣게 됐지만 상황이 어려워 결국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던 그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우연히 한 편의 시를 보고 작곡가 서승일 씨와 함께 어머니를 향한 노래 ‘사모곡’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앞산 노을 질 때까지 / 호미자루 벼을 삼아 / 화전발 일구시고 / 흙에 살던 어머니... 어머니 그리워서 이 한 밤을 지냅니다”

이 노래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북한 고향땅에 두고 남한에 내려와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된 수많은 ‘불효자’들의 마음을 적시며 한을 달래 주었다.



## 항상 더 노력하고 항상 더 연습하는 것이 왕도

태진아 씨는 명실공히 국내 트로트계의 ‘최고봉’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가요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히트곡을 내고 통련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더욱이 가수 비와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콜라보레이션 공연까지 여는 등 오히려 존재감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다. 그 비결이 궁금했다.

“아들처럼 여기는 가요계 후배들에게 항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노력하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항상 더 노력하고, 항상 더 연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답이에요. 또 40년 넘게 제 노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교포분들을 대상으로 공연할 때 ‘고향의 봄’을 부르면 관객들이 합창하면서 우실 때가 있어요. 가수는 이처럼 노래로 상대를 위로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탈주민들도 남한에서의 적응기간이 쉽지는 않겠지만 노래를 통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태진아 씨는 '2015 사랑타령'을 발표하고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랑타령'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낸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사랑타령으로 누군가의 메마른 가슴을 적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가끔 외국에서 교포분들을 대상으로 공연할 때 '고향의 봄'을 부르면 관객들이 합창하면서 우실 때가 있어요. 가수는 이처럼 노래로 상대를 위로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탈주민들도 남한에서의 적응기간이 쉽지는 않겠지만 노래를 통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탈북민정착지원 홍보대사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글. 기자회견>



##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이 멋진 통일!

통일연합동아리 유니크와 박찬봉 사무처장의 통일토크

지난 3월 4일 새학기 개강으로 분주한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자그마한 통일토크가 열렸다. 서울지역 대학연합통일동아리인 유니크 회원들과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이 함께 나눈 이날 대화에서는, 2010년대 학번과 1970년대 학번이라는 차이를 뛰어넘어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일비전과 필요성, 통일준비 등에 대해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 3월 통일토크 참가자 소개

**박찬봉(민주평통 사무처장)**

76학번이며 35년간 통일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 통일을 열어가는 건 청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청년들과 통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매우 즐거워 함.



**박지희 유니크 회장(성신여대 심리 12)**

학생운동이 아니라 그냥 '운동'을 좋아했던 평범한 여대생. 북한인권단체가 마련한 자전거행진을 계기로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됨. 재미있는 통일운동을 만들어가고 싶은 게 바람이다.

장윤석 유니크 부회장(동국대 북한 14)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통일동아리에서 활동한 덕분인지 은근한 내공이 느껴짐. 앞으로 북한에 진출해서 SOC 개발이나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꿈이다.



정은이(성신여대 정치외교 14)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다 그곳 선교사로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들은 이후 관심을 갖게 됨. 영자신문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SNS 등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있는 북한인권지킴이.

홍주현 (동국대 물리반도체 14)

통일과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학과 공부를 하지만 통일을 주제로 회원들과 토론하는 게 즐겁다. 국민들의 인식개선 등 실생활 속의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다.



## 연합동아리 유니크와 회원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박찬봉 사무처장

통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게는 애정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화의 열기가 타오를 때 대학을 다녔는데, 민주화 이후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게 바로 통일문제라고 생각해서 전공이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분야에 몸담게 됐어요. 제 소개는 드렸으니 이제 유니크와 회원들 소개 부탁할게요.

### 지희

성신여대에 '마파람(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2014년 2월과 5월에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각각 합류하면서 동아리 이름을 유니크로 바꿨어요. 북한문화체험전과 같은 캠페인도 하고 관련 논문 등을 읽은 후 발제, 토론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탈북민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 은이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니크에 가입했어요. 유니크에선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여러가지 생각을 듣고 토론할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또 한중미일의 입장이 되어 통일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4자회담을 열었던 것도 재미있었고요.



▲ 동국대학교 빈 강의실에서 유니크 회원 학생들과 통일토르를 나누고 있는 박찬봉 사무처장

**윤석**

고등학교 때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3년간 동아리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공 통일교육의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이 활동을 계기로 북한학과에 진학했고 유니크에서도 활동하게 됐어요. 앞으로 북한에 진출해서 SOC개발이나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꿈입니다.

**주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많지만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통일과 북한인권이라고 생각했어요. 통일동아리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당위성 뿐 아니라, 경제·안보·인권을 위해 꼭 필요한 통일**

**박찬봉 사무처장**

뜻 깊은 생각, 재미있는 통일활동을 해온 것 같아요. 오늘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통일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유니크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지희**

당연한 대답일지 모르지만,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그분들이 처해있는 상황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일이니깐요.

**윤석**

민족문제를 떠나서 저는 통일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봐요.

**은이**

경제문제는 둘째 치고 북한 인권이 너무 처참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억압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분단된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인 일 아닌가요? 하루 빨리 통일을 이뤄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북한주민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 박찬봉 사무처장

요점을 잘 이야기해준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것은 당위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며, 또 옳은 일이기도 하고 이익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경제적 안보적 측면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삶의 측면에서도 모두 의의가 크지요.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로 하나의 민족국가를 지향해 왔고 통일신라 이후 1,300년간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외부요인에 의해서 갈라졌고, 국제냉전구조에 의해 희생된 채 유일하게 우리만 분단국가로 남았지요. 따라서 비용이 들어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공동체는 회복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주기까지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요.

인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주민입니다. 통일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인권을 되찾아주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요.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의 결합은 최적의 만남입니다. 독일도 베를린에 가보면 더 멋있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곳이 바로 동독지역입니다. 도시들이 새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우리의 경제영역은 만주 시베리아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통일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다면 동북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되겠지요.

## 청년들이 바라는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

### 박찬봉 사무처장

통일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으니,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은 어떤 통일일까 생각해볼 차례인 것 같아요. 통일은 막연한 이상주의적 생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 매우 엄정한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 주현

통일은 어떤 조짐 없이 갑자기 이뤄질 것 같은데, 국가나 남한 주민들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설문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떨어진다고만 나오는데, 남한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통일이 갑자기 온다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윤석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남한은 세대를 떠나 광범위하게 통일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정착해야 우리가 미래에 그릴 수 있는 통일비전도 훨씬 밝다고 생각해요. 또한 북한이 경제적 지원이나 안보적 위협해소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처럼 구체적인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장윤석, 홍주현, 박지희, 정은이, 박찬봉사무처장 / 좌측부터

### 은이

저도 북한 급변사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가끔 미디어에 비치는 북한정권의 동요나 북한 주민들의 반체제행동 등을 보면 그저 상상속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속하게 통일을 이루되 전쟁 없이, 평화롭게,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 지희

통일은 당연히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관심도 없고 정확한 정보도 몰라요. 그래서 정부가 통일교육 등을 강화해 주셨으면 해요.

## 이시대에 걸맞는 학생운동은 바로 '통일운동'

### 박찬봉 사무처장

저는 이 시대에 걸맞는 학생운동은 바로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통일준비에 있어 청년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봐요.

### 지희

대학생들이 통일을 접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너희들의 이런 활동이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관심이 모이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당장 한국 내 탈북민 또는 탈북청소년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 보다 더 좋은 답변이 있을지 궁금해요.

### 박찬봉 사무처장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주장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증진하는 사업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것이 드레스덴구상에서 나온 천일프로젝트입니다. 가장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모, 영유아들을 1천일동안 보호해주는 것으로, 그 도움이 직접 수혜자에게 가지만 확인이 되면 바로 도울 겁니다. 반면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민주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북한의 인권문제도 이런 논의를 통해 뜻을 같이 모아야 해요.





**윤석**

근현대사를 봤을 때, 청년은 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였고, 앞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은 바로 통일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일차적으로 통일교육의 문제라고 봐요. 청년세대는 6.25와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대가 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와 함께 통일을 통해 취업문제도 해결되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청년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민주평통이 2030청년자문위원을 영입한 것처럼 청년들이 정책자문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젊은이들이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은이**

학생 개인적인 입장에서 SNS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보다 많이 공유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닌 사회를 놓고 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언론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언론에서 많이 보여주면 청년들도 보다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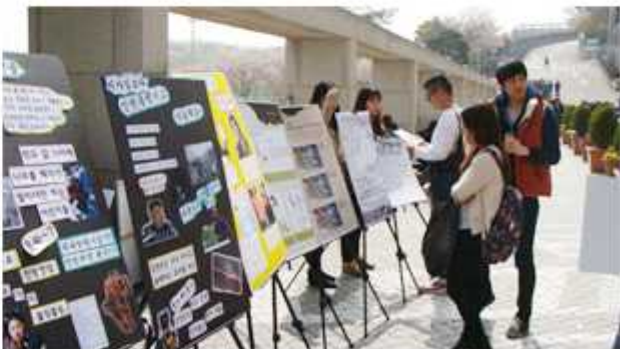
**지희**

제 경험에 비춰서 보면 통일문제는 좀 더 문화적인 부분에서 재미있게 다가갔으면 해요. 학술적인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가지는 게 먼저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기존 활동들과 더불어 탈북대학생들과 교류를 하려고 해요.

**주현**

딱히 뭔가를 한다기 보다는, 통일과 인권문제를 알려서 인식개선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도 통일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사회인이 된 후라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성균관대 북한인권캠페인 ▶



▲ 2014 탈북자 간담회



유니크 정기모임 ▶

대학은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지만, 지식의 차원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책임까지 가져가는 자세가 대학생들에게는 필요해요. 통일문제 역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한 후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대학생들이 통일동아리를 통해 활동을 하면 이점도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직접 만나서 건전한 논의를 하다보면 사회성도 향상되고 인간관계, 즉 네트워크도 넓어지며, 이는 나중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통일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법적 관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균형을 이룰 수 있지요. 아울러 통일은 국제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정세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출 수도 있어요.

과거 학생운동, 통일운동은 희생의 관점에서만 봤지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통일운동을 하면 좋을 듯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학생 통일운동이고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민주평통은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운동을 활성화시주길 바랍니다.

<글.기자희 / 사진. 나병필>



‘꽃이 필요한 순간에 꽃씨를 뿌리는 것은 너무 늦다’는 말이 있다. 봄을 맞아 하나 둘 말간 얼굴을 내미는 예쁜 꽃들은 누군가가 이미 황량한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묻어둔 노력의 결과물이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통일이 닥쳐 왔을 때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다. 먼저 남한에 온 탈북청소년들이 이 땅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만개할 날을 기다리며, 멘토링이라는 씨앗을 미리 심고 있는 민주평통 멘토자문위원들의 노력이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안정적·정기적 만남 위해 토요일 동아리 운영

똑똑똑! 똑똑똑!

작년 이맘 때, 부산 바닷가와 인접한 한 동네에 탈북청소년대안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강서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은 개교하기도 전에 수차례 학교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학교에선 외부인과 탈북학생들의 접촉을 조심스러워했지만 학교관계자들을 설득했고, 작년 5월 강서구를 비롯한 부산지역 자문위원들과 장대현학교 학생들은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을 시작하게 됐다. 강서구협의회에서는 이경수, 문미순, 김연행 멘토자문위원이 은총이, 가희, 자롱이(이상 가명)와 각각 팀을 이뤘다. 처음엔 멘토 3명으로 시작했지만 김성곤 협의회장과 최종렬 간사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고, 지금은 강서구 전 자문위원들이 장대현학교 학생들의 멘토링을 함께 하고있다.

결연식 직후, 의욕은 높았지만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이 됐다. 북한이라는 낯선 땅에서 15~17년간 자랐고, 사춘기를 겪고 있었으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다 주말엔 부모님과 함께이거나 교회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대현학교 측에서도 남한에 온 지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 1대1 만남을 다소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구협의회의는 멘토-멘티간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매달 셋째주 토요일마다 '어깨동무하기 토요동아리'를 만들어 추진했다. 아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놀이공원이나 경마공원에 다녀오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들을 하면서, 아이들은 멘토자문위원에게 친밀감을 느꼈고 자문위원들은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식당에서 쇠고기나 떡갈비처럼 좋은 음식을 사줘도 잘 안 먹던 아이들이 5천~6천 원하는 밀면을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밀면이 북한음식과 비슷해서 그런지 음식을 맛본 순간 한참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아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낀 것 같아요."

거제도도 멘토링여름방학캠프를 갔을 때는 서먹서먹한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수 있었다. 특히 멘토가 낱말카드를 보고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하면 멘티가 맞추는 게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적, 문화적 격차를 좁히기도 했고 나중에는 팀간에 경쟁심이 붙어 서로 이기려고 열을 올리는 바람에 많이들 웃었던 기억이 오래도록 남는다고 했다. 또 6~7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일일 어린이집교사체험을 2회 했는데, 학생들은 영유아들을 돌보면서, 스스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 북한인권변호사의 꿈을 키워가는 은총이

매달 열리는 '토요동아리'는 대부분 학교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멘토자문위원들은 여행, 대화, 진로탐색 등을 통해 자신의 멘티와 더욱 가까워져 있었다. 이경수 멘토자문위원의 멘티는 (당시) 남한에 온지 6개월 된 은총이었다. 은총이는 혼자 먼저 남한으로 내려왔고 아직도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다. 똑똑하고 현명하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어서인지 아이답지 않게 주위를 너무 의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1년새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지금은 막 뛰어와서 저에게 어린아이처럼 안겨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천천히 적응해 나가겠지요. 습자지 위에 물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처럼요."

은총이는 한국문화도 잘 모르고 낯설었는데 멘토선생님과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말한다. 특히 외래어가 많이 섞인 남한의 언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한국에서는 뭐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은총이는 작년 가을,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한 지 한 달 반 만에 합격했다. 장래 꿈은 변호사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인민재판을 받을 때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인권변호사가 돼서 한국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도와주고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서도 일하고 싶어요.”

이경수 자문위원은 비록 쉽진 않겠지만 꿈이 확실하고 의지가 강한 은총이의 노력을 가능한 뒷받침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탈북청소년 멘토링을 하면서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이 생겼고, 주위사람부터 탈북민에 대한 이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했으며, 통일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또 다른 멘토링 팀은 25년여 교직생활을 했던 문미순 멘토자문위원과 멘티 가희다. 가희는 문 자문위원이 처음 만나는 탈북민이었다. 그녀는 “실감도 나지 않고 어색했지만, 6개월동안 열 번 가까이 만나면서 여행도 다녀오고 카톡도 자주 하다보니 마치 늦둥이 딸아이를 얻은 것처럼 좋다”고 했다.

가희와 문미순 멘토, 그리고 은총이와 이경수 멘토는 지난 여름방학 때 순천만생태공원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순천만 갔을 때 북한 생각이 났어요. 고향에도 그런 벌판이 있거든요. 순천은 북한에서 역사를 배울 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큰 사건이 난 곳이라 어수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깨끗한 관광지로 꾸며놓았을 줄 생각도 못했네요.”

가희가 문미순 멘토에 대해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멘토링 시작 때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와주시는 것이라고 한다. 일정이 바빠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매번 찾아오셔서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점이 좋다고 했다.



“이건 제 친구 이야긴데, 저희 멘토선생님들은 자주 오시지만 친구는 멘토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그때마다 펄펄 울었어요. 옆에서 보는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요.” 친구 생각에 가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렇게 인정 많은 가희의 꿈은 간호사다. 손도 못쓰고 속수무책으로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가희는 북한에 있을 때 할머니와 아버지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돈도 없고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의학지식이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북한에 있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문미순 멘토자문위원은 올해 바닷가에서 찬란한 일출을 보면서 가희가 남한사회에 잘 적응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그녀는 가희가 남한으로 온 것이 ‘내 생애 최고로 잘 한 선택이었다’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다.

## 🎈 형을 데려오기 위해 공부보다 일을 택한 자룡이

행복해 하는 가치와 은총이를 보면 가끔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김연행 멘토자문위원이다. 멘토링을 해왔던 자룡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강원도로 가버렸기 때문. 자룡이는 엄마와 둘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형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브로커비용이 필요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를 접고 일을 택했다. 멘토-멘티 결연식날 자룡이는 요리사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2~3번의 만남 이후에는 자동차 기술을 배워 돈 잘 버는 직장을 갖고 싶다고 했다.

“인근 자동차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견학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이미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낮에는 공부를 하고 야간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요.”

김연행 자문위원은 자룡이 대신 장대현학교 아이들을 다 같이 멘토링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탈북민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상일 수는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멘토링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성곤 협의회장은 “초기만 해도 학교에선 외부인과 탈북학생들의 접촉을 조심스러워했지만 멘토링을 통해 꾸준한 만남을 지속한 결과, 학생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최종렬 간사도 올해 탈북학생들이 남한 문화와 환경에 서서히 잘 스며들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멘토자문위원들은 자문위원이면서도 북한주민들의 실상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많았는데 멘토교육과 멘토링 활동을 통해 조금씩 깨닫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도 탈북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글/사진. 기자희>

엄마, 아버지가 같은 민주평등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은미 국어교사(장대현학교 연구부장)

남한생활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 하나원에서 나온 친구, 중국에서 온 탈북민 자녀 등이 장대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한에 적응해가면서 부족한 기초학습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달리 이젠, 사선을 넘어오면서 받은 상처도 치유돼 가고 있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 남한 아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문화·학업교류를 할 수 있을 듯해요. 또래의 아이들처럼 놀이공원 등을 좋아하는데 부산뿐 아니라 경주, 거제까지 남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신데 대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강서구협의회 위원님들은 엄마 아빠같은 마음으로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 장대현학교는?



기숙형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일반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됐다. 정원은 20명이며, 전원 전액 장학금으로 교육 받는다. 2012년 한 독지가가 현재 장대현학교 건물을 통째로 기부한 데서 시작됐다.





따뜻한 봄 햇살이 운동장 위로 깨알같이 내려앉은 광주 일동중학교 교정. 점심시간을 맞아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벤치에 앉아 잡담을 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저희들도 인터뷰 하면 신문에 나와요?” “글쎄, 안 가르쳐 주지!”

“아이, 가르쳐주세요오.”

이제 겨우 초등학생 티를 벗은 서너 명의 아이들은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이며 울망졸망 따라오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과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휘파람을 불거나 놀려대는 아이들도 있었다. 2층 교실로 향하는 복도 계단에 붙은 학생들의 습작그림 '뽀로로'를 보고 있자니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뽀로로를 닮은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뭘까, 몹시 궁금했다.



## 근현대사 더 공부해서 올해는 꼭 1등 할래요

김민선 선생님을 따라 들어간 생활지도부 교실에서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종현이와 민서, 성식이, 주원이를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일동중학교는 4명의 학생이 시·도 대회에서 입상했고 교사상과 학교상도 가져왔다. 이날 만난 학생들은 당시 2학년이었는데 수상은 모두 졸업한 3학년 형들의 몫이어서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작년 대회 출전경험을 물었더니 누가 먼저 대답할지를 놓고 귀엽게도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다. 첫 번째 순서는 종현이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처음에는 기가 죽었어요. 처음으로 칠판을 들고 퀴즈를 푸는 게 설레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개항기 이후의 역사를 배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뼈대가 안 세워졌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자신 있어요.”

중현이는 올해 대회에서 1등을 하겠다면서도 ‘상을 받는 것보다는 통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중점을 더 두겠다’며 기특한 이야기길 한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분단돼 있었고, 전쟁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분단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국어시간에 김광규 시인의 ‘동서남북’이라는 시를 배웠는데, 북한이나 남한이나 시냇물도 왔다갔다 흐르고 동치미 맛도 같은데 왜 남과 북이 나뉘어 있나 하는 내용을 보면서 통일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 교과서 같이 어색한 답변에 모두들 까르르 웃어

민서는 주원리와 함께 1학년 때도 출전했다. 그래도 2013년엔 본선 마지막 한 문제 직전에서 떨어졌는데, 작년엔 워낙 ‘쟁쟁한’ 선배들이 많아 더 일찍 탈락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1학년 때는 역사과목이 없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는데, 3학년 땐 역사시간에 근현대사를 다 배우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아요.”

민서는 대회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통일’하면 떠오르는 게 이산가족 밖에 없었는데 북한에 대해 알게 됐고, 통일을 왜 해야 하는 지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래도 통일이 생각만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또래도 보면 북한은 안 좋다고 보는 애들이 많거든요. 통일을 하려면 먼저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성식은 퀴즈왕대회가 게임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에도 처음 가봤고 머리싸움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임을 해봐서 재미있었다. ‘인생의 나침반’인 김민선 선생님을 존경하고 자신도 역사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성식은 점심시간과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서 근대사를 더 배웠을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많다.

“전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 유럽-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대륙에 진출하면 경제성장도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제법 어른스러운 성식의 대답에 ‘성식은 답변을 미리 준비해 왔나 봐’ 소곤거리며 다른 아이들이 킁킁대며 웃었다. 누가 뭐래도 중학생은 중학생이었다.

주원이라도 만만치 않다. '선생님께서 저희를 열정으로 이끌어주셨어요'라는 아버지(?) 말에 모두들 재미있으며 와하하 웃음을 터트렸다. 주원이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3급 자격증을 딸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남북한 분단으로 이산가족은 아픔과 고통을, 국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한시라도 빨리 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력으로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읽는 듯한 주원의 어색한 답변에 모두들 까르르 웃어댔다.

통일이 되면 무얼 하고 싶은 지 묻는 질문에 아이들은 '친구랑 평양에서 먹거리 투어를 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아직 '절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느끼진 못했지만, 순수하면서도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아이들의 마음에 앞으로 어떤 역사관이 새겨질지 자못 궁금했다.



## 교실 밖에서 배우는 건강한 역사통일교육 좋아요!



교사생활 10년차인 김민선 선생님은 4년 전부터 역사동아리인 '향토사'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다. 평소 아이들과 함께 역사현장 답사나 박물관 견학 등을 자주 다니고, 학생들에게 역사관련 대회 출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하는 역사는 딱딱하다 재미없다고 느끼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친근하게 느낀다는 것.

"역사-통일퀴즈왕 대회에 그냥 한 번 나가본다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어요. 커다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하니 축제처럼 느껴진대요. 자기는 떨어져도 선배들을 응원하며 즐거워 하고, 아는 문제가 나오면 안타까워하면서도 계속 문제를 풀더라고요. 수업하는 것보다 생동감 있는 교육이 되는 거지요."

김민선 선생님은 대회 전 공부할 자료 모아서 주고 같이 문제도 풀어보는 등 기본적인 공부법을 잡아줬더니 나중에는 스스로 공부하고 필요한 것을 캐치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비록 2학년 가운데 임상한 아이들은 없었지만, 실망하는 기색도 없이 '내년에도 꼭 나가요. 재밌어요. 더 공부 열심히 해올게요'라고 말해 선생님을 기쁘게 했다고.

김민선 선생님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우리 역사와 통일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아이들 세대엔 통일이라는 문제가 그다지 절박하거나 피부와 와 닿진 않아요. 학교통일 교육도 등기부여가 상당히 약하고요. 하지만 이런 대회를 계기로 통일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균형감 있는 통일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선선생님은 평소 건강한 역사관, 통일관을 중요시한다. 역사란 암기과목이 아니라 탐구과목이라는 게 지론이다.

끝으로 김민선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개성엘 가보고 싶다고 하며, 아이들에게 '이번엔 선죽교를 같이 보고 오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기자희>



### “퀴즈왕대회, 역사에 대한 관심 높이고통일의지 고취”

**김희무 교장선생님** “전임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통일교육 실무학교를 2년간 진행하면서 통일골든벨도 했고, 통일의식고취를 위해 유적지 탐방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일동중학교에 부임해보니 김민선 선생님이 역사상설동아리를 운영하며 주말에 쉬지도 않고 유적지견학을 다니는 등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수업시간에서는 접해보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며 역사의식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교장선생님도 출발 현장에 나와 항상 격려해주셨다고 한다). 요즘 학생들 보면 3.1절이 뭔지, 6.25가 언제 일어난 지도 모를 정도인데, 역사통일퀴즈왕 대회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은?



2014년 9~12월경 '바로알자 우리역사! 열어가자 행복통일!'을 주제로 민주평통 시도 지역회의 및 시·군·구 지역협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했다. 381개 중학교에서 17만2천여 명이 참가했다. 시·도대회 입상자 가운데 80명이 전국결선대회에 참가했으며 대회모습은 MBC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쇼-히스토리 워'를 통해 방영됐다.



## 북한의 연애문화

# 연인사이 최고의 인기 짱 선물은 핸드폰?

강 원 철(위드유 사무국장)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감정이 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겁고 애뜻하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꽃을 피우는 남녀 간의 사랑은 더욱 그렇다. 가끔씩 들려오는 감동적인 사랑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이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이고 통제된 곳에서도 사랑은 꽃을 피우고 있다.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 북한의 청년남녀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랑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자.



## 연애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 생겨나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 왔다. 보수적인 유교문화에 익숙한 부모 세대가 자유분방한 지금 세대의 사랑과 연애방식을 불편해하고 있듯이 말이다. 북한도 최고 통치자의 스타일에 따라 연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표현 방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청년남녀들의 사랑과 연애를 통제와 단속으로 일관했다. 연애는 자본주의 산물이며 사회주의를 좀먹는 불순물로 간주했다. 이 시기 공개 연애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비밀연애를 하다가 걸린 경우엔 비판의 대상, 사상개조의 대상이 됐다. 대학생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강도는 더 높았다. 심할 경우 퇴학까지 시켰다. 무상으로 공부시켜준 당과 수령의 은혜를 잊은 죄,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에 들든 죄목이 적용됐다. 국가가 직접 통제를 하니 연애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연애를 하다 걸리면 '사생활이 복잡한 놈'이라 낙인 찍혔다. 그 낙인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이다.

반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연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남녀 간의 연애가 자유로워졌으며, 스킨십도 가능해졌다.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녀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김정은이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의 결과이다. 북한 매체에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와 팔짱을 끼고 나타나자 북한의 청년남녀들은 열광을 했다. 김정은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 연애와 스킨십은 더 이상 사회주의 불순물이 아닌 사회주의 꽃으로 인식된 것. 여기에 북한 내부를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이 더해져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 군대 징집전 연애를 하기 위해 고급중학교 2~3학년때 가장 활발

연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줄어들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니 남녀 간의 구애는 더욱 활발하고 대담해졌다. 마음에 든 상대가 있으면 직설적으로 고백하고 심지어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고백하기도 한다. 북한에는 남성들의 구애가 가장 활발하고 대담해지는 시기도 있다. 학교 졸업을 앞둔 고급중학교 2~3학년(옛 고등중학교 5~6학년)때이다. 북한의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군대에 징집된다. 군으로 끌려가기 전에 연애 한 번 해보려는 욕구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사랑 고백을 할 땐 '사귀자'라는 말보다 "당(진짜)등 무하자", "나랑 친하자", "널 책임질게" 등의 투박한 북한식의 표현을 더 선호한다.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연인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게 된다. 남한의 경우 데이트 코스가 수없이 많아 고민일 때가 많다. 반면 북한은 데이트를 즐기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다. 평양의 경우 대동강변이나 공원에서 데이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은 평양과 같은 로맨틱한 장소를 찾기가 힘들다.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는 연인들끼리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신종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돈만 주면 집을 빌릴 수 있고, 심지어 국가가 운영하는 목욕탕 열쇠도 연인들의 손에 쥐어진다.



## 여자들은 쌍꺼풀 수술 화장품, 다이어트에도 관심



연애가 자유로워 졌지만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와 같은 연인들만의 특별한 날까지 챙기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인들은 그들만의 의미 있는 날을 만들어 서로를 챙긴다. 생일과 100일, 처음 만난 날 등을 기억해 선물을 주고받는다.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옷이나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다. 이때 남자의 능력과 재력에 따라 선물의 수준도 달라진다. 최근 들어 연인들 사이 인기가 있는 선물 품목도 생겨났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핸드폰이다. 핸드폰을 사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자들에게 단연 인기도 쟁이다. 핸드폰을 사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애도 힘들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다. 또한 경제력이 연애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능력 있는 남성을 차지하기 위한 북한 여성들의 노력도 엄청나다. 쌍꺼풀 수술이 성행한지 오래 됐으며 화장품과 성형, 다이어트에도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모든 것이 불가능 할 것만 같은 북한. 그 속에서 피어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이야기는 남한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북한 내 연인들의 용기와 노력이 돋보인다. 북한의 연인들도 남한처럼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중년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보면 '왜 젊었을 때 남한에 오지 않았을까, 이제 뭔가를 시작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아요'라며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최근 만난 아주머니 A씨는 "마흔에 남한 가면 뭐 하나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었다"며 "80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이제 겨우 절반 밖에 살지 않은 셈이라고 생각하니 생에 대한 희열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나이에도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비록 남과 북은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의지만 갖는다면 그 차이쯤,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생소한 '등산 문화'와 '고사리나물'에 대해 소개해 본다.

## 약속장소는 나 집, 아니면 너 집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기를 듣기 위해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년의 한 아주머니 A씨와 전화로 약속장소를 막 정하려던 참이었다. '어디서 볼까요?' 물었더니 대뜸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라고 말한다. '조용해서 저는 좋은데, 집에 모르는 사람을 들이면 어머님(A씨)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라고 물었더니 '아, 그런가요?'라며 지하철 역 근처 카페로 약속장소를 바꾼다.



"평양같은 덴 몰라도 북한의 시골은 다 단층집이거든요. 여기 표현으로 하면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거요. 옆집과 되게 친하고, 오늘 뭐 해먹는지 다 알고, 만나고 싶으면 당연히 나(내) 집이나 너집에서 보는 거지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6년 동안 남의 집이라고는 고향친구네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꼭 친해서가 아니라 '보안'을 위해 이웃집을 드나드는 사람도 있단다.

“여기로 말하면 통장쯤 될 것같은데, 통장이 막 때 없이 집을 찾아와요. 괜히 다정한 척 하면서 쓱쓱 살펴보곤 가는 거죠.” A씨도 당시 남편이 먼저 탈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전화 연락이라도 올라치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다는데.

“감시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담배 한 갑 주면 그 날은 본 것도, 들은 것도 다 모른 척 해줘요. 지금 생각하면 담배가 돈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남한에서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담배지만 북한에서 거꾸로 의로서비스의 질을 바꾸기도 한단다. “국영병원이니까 원장이라고 해봐야 돈도 못 받고 쌀도 못 받잖아요. 직장에 나와 앉아서 있지만, 이 사람도 오늘 집에 가면 죽을 먹을지, 수돗물을 마셔야 할지, 먹을 게 걱정인거죠. 그래서 아무 것도 안 갖다 주면 요기가 터져도 대충 빨간약이나 발라주면서 가라고 해요. 그런데 '고양이 담배' 한 갑 들고 가서 책상 위에 놔주면 항생제도 놔주고 못 보던 약들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막 그래요.”

## 봄엔 등산이 최고라지만 산에 가기 싫어요

남한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가 등산이다. 특히 진달래 피는 3월은 '환상의' 등산코스가 많다. “첨엔 되게 신기한 거 있죠. 등산 간다 하기에 참 이상하다, 뭐 하러 그 힘든 산에 가냐고 그랬어요.”

A씨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등산을 가자고 했을 때, 산엔 안 가겠다며 단박에 거절했다.

“거기(북한의) 산은 다 판판한 군대머리(민둥산)예요. 다 깎아가서 영농지로 만들었어요. 말로는 산림을 애호하자 하는데, 그 산 바라보느니 옥수수라도 한 포기 더 심어서 내가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을 깎아 친 다음, 밭을 뜨지고(갈고) 퇴비를 나르기 위해 산에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산이 집에서 꽤 멀기까지 하다. 세 시간을 걸어갔다가 일하고, 또 다시 세 시간을 걸어서 집에 온다. 그뿐 아니라 마당비 재료인 싸리도 할당량만큼 채취해야 하고, 김일성 생일 무렵에는 진달래도 꺾으러 다녀야 한다. 등산화가 있을 리 만무하다. 고무에 천을 덧대 만든 신발인데 비탈길에서는 자꾸 벗겨지기 일쑤라고.



남한 직장동료들이 '그냥 몸만 오면 된다'며 계속 권유하자 할 수 없이 등산에 나선 A씨. 그런데 웬걸, 너도나도 알록달록 예쁜 등산복, 등산화 차림에 배낭을 한 짐씩 들고 오는 게 아닌가.

"먹을 걸 요만큼 싸가지고 올라가서 다 퍼놓구 먹으면서 놀더라고요. 첨엔 '아니,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먹지, 왜 산에까지 와서 먹냐', 정말 신기하다 했어요. 왜 산엘 올라가냐 했더니 그냥 산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려 간대요. 보면 어찌고 안보면 어찌고, 참 취향 한 번 신기하다 그랬죠."

A씨는 등산과 함께 봄이 되서 즐거운 건 '축제' 때문이라고도 했다.

"봄 되면 축제를 많이 다녀요. 딸기축제, 대게축제, 꽃축제도 다 가봤는데 좀 비싼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남한에 친척이 없으니까 평소 지방에 갈 기회가 없는데 여행갈 때 일부러 축제장으로 다니면서, 그 지방에 대해서도 알고 축제도 보고 그래요. 축제란 게 참 좋더라고요."

## 웰빙음식 고사리, 여기 와보니 맛있네요!

A씨는 처음 남한에 왔을 때 그동안 잘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 특히 삼겹살을 주로 먹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건강을 위해 산채비빔밥이나 나물 등 채식을 좋아하게 됐다. 그런데 고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다.

"고사리를 그냥 데쳐 먹으면 너무 썩썩(뻑뻑)해서 잘 안 먹어요. 북한에선 먹는 방법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풀어지게 삶아서 육수에 넣고 부드럽게 먹더라고요."

북한에서 고사리는 '수출품'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린다. 시금치나물이 5~10원이라면 고사리는 2천~3천 원정도이기 때문에 산간 고사리농장으로 고사리를 캐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한 번 먹어보긴 했는데 맛도 없는 이게 왜 비싸게 팔리는지 참 이상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 있죠. 싸기도 하고 몸에도 좋다고 하고요."

A씨는 약령시장 약초들을 봤는데, '중국산'이라고 씌여있지만 '북한산'일 것 같다고 말한다. 북한에서 삼주,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 같은 것을 개인이 조금씩 따서 팔려두면 전부 수출한다며 가져갔다는 것이다. 만약 그 약재들이 북한산이라면 적어도 농약 걱정은 안하고 드셔도 될 것다고 A씨는 말했다.

봄이 되면 북한은 농사준비로 온 나라가 분주해진다. 봄엔 밭갈이 전투, 여름엔 풀베기 전투, 그리고 가을 수확철에도 자주 동원되는데 '동원'이라는 개념이 여기와는 다르다고 했다.

"거기(북한)는 내 노력을 무자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한 대가를 딱딱 주잖아요. 남한에선 직장을 다니면서 단지 나를 위해 돈을 번 것뿐인데, 저보고 열심히 산대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여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A씨는 남편과 가끔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애들은 부모를 너무 잘 만났다고.'

"남북이 분단된 게 우리 탓도 아니고, 부모 세대 잘못만 나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남한으로 왔으니 우리 애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애들은 이제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겠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노후를 잘 준비할 거고요."





##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를 주제로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등 9개 기관·단체 공동개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민주평통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경실련통일 협회·국민대통합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연구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9개 기관이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으며, 관계인사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분야별 전략과 정책 대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고, 특히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민간 등 섹터별 전략, 1.5트랙 정책네트워크를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대박은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8위의 무역대국,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을 이룬 저력으로 '대동강의 기적'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번영을 이루자는 원대한 구상"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원하는 체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일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세션

## 좌승희 교수 '대동강의 기적' 통해 통일비용 없는 통일 이뤄야

제1세션은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사회,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민주평통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장)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좌승희 교수는 '대동강 기적'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소개하며, 한국의 개발연대(1960~1980년대), 중국의 지난 30여 년과 같이 '정부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북한의 경제도약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 교수는 이러한 체제하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타도대상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장기집권과 국민과의 공동번영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동강 기적의 모델, 즉 '한강의 기적'의 성공원리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정부주도의 신상필벌 경제적 차별화 정책', 경제정책결정에 정치의 영향을 차단하는 '정치의 경제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1만불 이상의 1인당 소득을 달성하며, 북한은 한국경제의 중화학산업을 인계 받고, 한국경제는 IT 융·복합, 고급서비스산업에 특화하여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남북한이 1국 2체제의 자유왕래 속에 평화롭게 공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비용 없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



이어 김영운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협력하여 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남북간 장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스스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통일은 어느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정표와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었다"는 독일동방정책의 브레인 에곤 바르(Egon Bahr)의 말을 인용하며, 협력사업을 세분화해 단계적 성공을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천했다.



▲ 김영윤 회장



▼ 남성욱 교수



▲ 이승률 이사장



▼ 허경희 교수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은 "남북중 남북러 등 접경지역에서의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이끌어내는 신북방경제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북한도 변화를 통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허경희 홍익대 교수는 '통일현장'에 '대동강의 기적' 같은 비전과 전략 등이 담긴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세션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한경제 발전 위한 섹터별 전략 논의

제2세션은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수영 박사(한국경제연구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최수영 박사는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의 경제적 주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목표를 '공동시장' 정도로 낮추고 제도적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남북한 경제부분이 강하게 결속되는 경제공동체를 추구한다면 북한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북한에 다수의 개인기업 및 소기업 등이 출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특히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방향을 따라가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수영 박사(한국경제연구원)

김영훈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농업분야의 성장이 북한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작은 협력을 통해 큰 변화를 견인하는 농업협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배종렬 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은 "향후 한국의 북방진출 전략구도는 북한보다는 연해주나 동북3성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중·남북러 삼각협력프로젝트 발굴에 역점을 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훈 박사



▼ 배종렬 사무총장



▲ 임을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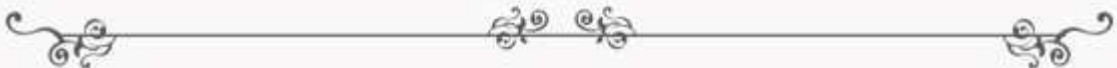


▼ 조봉헌 박사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개성공단이 대동강 기적을 이끄는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중국 기업 친화형 모델이 아닌 유일하게 남북모형을 적용하고 실험하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라며 “북한 스스로 한강의 기적 모델을 일부 채용하려는 노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는 “북한이 수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를 발전시키고 여기에 금융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한강과 대동강의 물이 만나 통일경제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북한의 외자유치를 돕고 남북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 활성화와 북한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협력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북한 스스로 경제 발전과 개혁-개방에 우호적이 되도록 '어떻게'에 대해 협력하고 조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그 중에서도 '한강의 기적' 성공경험과 노하우 전달에 주목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통일준비를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올해 세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 9개 공동주최기관장의 환영사



**손길승 전경련 통일경제위원장** = 지난 50년간의 기업경영 경험을 되살려 통일한국을 위해, 북한의 재건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남한은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도약했습니다. 플랜과 비전을 갖고 남북한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북한이 남한 수준에 이르는데 그 절반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정부에서도 한반도 통일비전을 선포했고 민간도 통일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중국조차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진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 통일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2차대전 이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분단된 채로 남았는데, 남북한 인구와 자원, 자본, 기술이 결합되면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통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끊임없는 공론과정을 거친다면 국민대통합의 완성, 남북통일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몽산 경실련 공동대표** = 9개 시민단체와 기관이 모이는 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뿌려줘야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 당국은 상호 신뢰구축 및 인도적 지원, 경험 재개 등 실질적 관계개선 조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 은행장** =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기여해온 IBK기업은행은 다가올 통일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탈북민 경제금융 교육 및 창업 지원, 통일대박 기원통장 출시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킬 중소기업이 많아야 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통일 관련한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렬 북한연구학회 회장** =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통해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가는 통일준비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 대토론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정부와 민간을 잇는 1.5 트랙의 정책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홍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북한에 전수함으로써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수탁·운용하는 기관이며, 2014년 북한개발 연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북 중 및 남북러 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지난 해 11월 출범한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통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중입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정부 측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경제특구 진출을 통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조성되고, 또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간다면 통일도 자연스럽게 앞당겨질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주요뉴스

### 사회각계 원로 초청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클럽에서 사회각계 원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북정책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회각계 원로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경대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임을 언급하며 "민주평등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학과 통일준비를 국민적 화두로 제시하셨다"며 "민주평등도 통일준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선양 무오독립선언 96주년 기념행사 개최

중국 선양협의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한·중 양국간 항일역사에 대한 공동관심사와 한·중 우호협력을 넓혀나가기 위해 무오독립선언 제9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무오독립선언 제96주년 기념식은 1919년 2월 1일 만주, 연해주,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39인의 명의로 길림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는 자문위원, 주선양총영사관, 동북3성각 지역한인회회장, 동포대표, 교민, 유학생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무오독립선언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투쟁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독립선언으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대전자령전투 등 동북지역 무장독립전쟁과 동북항일무장투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 브라질협의회, 빅토리아·쿠리치바 지역 차세대 통일 강연회 개최



브라질협의회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빅토리아와 쿠리치바지역에서 차세대 통일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는 브라질협의회 최초의 지방 행사로 차세대 한인들에게 조국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브라질협의회는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정체성과 역사관, 한국의 경제 상황,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능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경기 파주시 나라사랑 토론대회 개최



경기 파주시협의회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경기영어마을에서 '나라사랑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등학생 120명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악정 체결과 미래 통일비용준비, 북한이탈주민지원 확대 등 통일, 안보 관련 주요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나라사랑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경기 파주시협의회와 경기일보, 경기영어마을이 공동 주최하고 이주대학교가 주관했다.

## 중동협의회, '북한인권 사진전 · 강연회' 개최



중동협의회 두바이분회는 2월 21일 북한인권 사진전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실상을 동포들에게 알렸다. 강연회에서는 평양 백두-한라 예술단 김영옥 단장이 강사로 나서 북한의 실상과 탈북 동기 및 과정을 알려주었다.

## 2015년도 1분기 분과위원회 개최



민주평통은 2015년도 1/4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10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토론내용은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3월 중 보고될 예정이다.

## 2015 전국 여성분과 ·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개최



올해 여성 · 청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광복70주년 여성 · 청년통일사업 청사진 마련을 위한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와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가 2월 5~6일과 2월 11~12일 각각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경남 밀양시협의회



▲ 경기 포천시협의회

경남 밀양시협의회는 2월 25일 시민, 자문위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통일시대시민교실'을 개최했다. 경기 포천시협의회는 2월 27일 수기사기갑여단6189부대에서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전남 장흥군협의회 ▶

▼ 부산 사하구협의회



전남 장흥군협의회는 1월 28~29일 자문위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통일연수'를 개최하고 안보현장을 견학했다. 부산 사하구협의회는 졸업식을 즈음해 2월 11~12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우수졸업생을 선정해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경기 광명시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 경기 김포시협의회



▼ 충북 단양군협의회



경남 진주시협의회는 1월 31일 북한이탈 청소년 멘티 및 가족 등과 함께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겨울방학 캠프'를 개최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는 2월 3일 설명절을 맞아 김포경찰서와 관내 거주 북한이탈 주민 및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들에게 떡국 떡을 전달했으며, 같은 날 경기 광명시협의회는 북한이탈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전달했다. 충북 단양군협의회는 2월 5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설맞이 나눔 행사 및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열었다.



▲ 부산 영도구협의회



◀ 충북 충주시협의회

▼ 경남 통영시협의회



▲ 경기 군포시협의회



▶ 경기 안산시협의회



부산 영도구협의회는 2월 11일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해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성품전달식'을 가졌으며 충북 충주시협의회도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쌀을 전달했다. 같은 날 경남 통영시협의회는 관내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경기 군포시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쌀과 지원품을 전달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도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남북주민 인식개선사업'으로 '설맞이 나눔행사'를 열었다.



▲ 충북 청주시협의회



▲ 충북 옥천군협의회



▲ 울산 남구협의회

12일 충북 청주시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문화가정에 설 명절 선물을 각각 전달했으며, 충북 옥천군협의회와 울산 남구협의회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 무안군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터전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내는 주민들과, 마을 어르신들께 따뜻한 떡국을 나누는 '떡국봉사'를 개최했다.



▲ 전남 무안군협의회



▲ 충북 지역회의



▲ 전남 해남군협의회



▲ 강원 동해시협의회



▲ 경남 남해군협의회

충북 지역회의는 2월 15~16일까지 타향에서 명절을 지내는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떡국 나누기 등 다양한 '명절행사'를 마련했으며, 2월 16일 전남 해남군협의회는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노인요양소, 특수어린이집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 같은 날 강원 동해시협의회와 경남 남해군협의회도 '북한이탈주민 설맞이 선물전달식'을 열어 고향에 대한 향수를 위로했다.



지역 봉사활동



▲ 광주 지역회의



▲ 전남 나주시협의회

▼ 경남 함양군협의회



광주 지역회의는 1월 30일 광주지역 관내 5개구 소외계층 가정에 쌀을 전달했다. 전남 나주시협의회는 2월 10일 남평실버타운을 방문해 나눔과 봉사의 시간을 시간을 가졌으며, 경남 함양군협의회는 11일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부산 부산진구협의회는 14일 '설맞이 독거노인과 이주여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고 강원 평창군협의회는 13일 소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떡과 김을 전달했다.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



◀ 강원 평창군협의회



▲ 대전 서구협의회



▲ 전남 진도군협의회



▲ 전남 여수시협의회



▲ 경남 함천군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는 2월 14일 서구 노인복지관의 재가 독거노인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행복드림 릴레이' 행사를 열었으며, 전남 진도군협의회는 16일 관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무료떡국' 배식 행사를 가졌다. 전남 여수시협의회는 17일 북한이탈주민 등을 초청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설맞이 지역사랑' 행사를 개최했고, 경남 함천군협의회는 11일 재일학도 의용군참전 김운태(90)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 부산 중구협의회



▲ 전북 익산시협의회



▲ 부산 서구협의회

전북 익산시협의회는 2월 12일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열었으며, 같은 날 부산 서구협의회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관내 재래시장 일대에서 '전통 시장 체험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산 중구협의회는 13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관내 재래시장인 부평시장에서 쌀을 구입해 중구노인복지관에 기탁, 어려운 이웃에 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고, 경북 영주시협의회도 15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및 전통시장 지키기 캠페인'을 열었다.



▲ 경북 영주시협의회

▼ 충남 서산시



▲ 대구 중구협의회



▲ 충남 공주협의회



충남 예산군협의회 ▶



▲ 대구 달서구협의회



▲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경북 포항시협의회



▲ 경북 울릉군협의회



▲ 경기 구리시협의회



▲ 경기 가평군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 경남 거창군협의회

부산 북구협의회 ▶



대구 중구협의회는 3월 1일 대구 중구 청라언덕 교육역사박물관 및 3.1만세운동길 일원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광복 70주년 기념 제96주년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충남 공주·서산시·예산군협의회, 대구 달서구협의회,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경북 포항시·울릉군협의회, 경기 구리시·가평군협의회, 강원 홍천군협의회, 경남 거창군협의회는 2월 26일 '전국 동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거리 캠페인'을 열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게양 홍보활동을 펼쳤다. 부산 북구협의회는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관내 4곳에 광복 70주년 3.1절 태극기 게양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경북 칠곡군협의회는 한미친선 평화통일사업으로 2월 6일 주한미군 6병기대대 84병기중대 내 다부동 전승비 주변에서 봄맞이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했다.



경북 칠곡군협의회 ▶



##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행사

영국협의회는 2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 행사를 런던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 한국전쟁참전용사회와 현지인, 재영한인동포, 탈북민 등 180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 해외 지역 통일활동

### 워싱턴협의회, 영화 '국제시장' 특별 상영회 후원



미국 워싱턴협의회는 지난 2월 11일 한·미 노병 50여 명과 미 국무부 직원, 주미대사관 직원, 현지 교민 등 200여 명을 초청해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이 담긴 영화 '국제시장' 특별 상영회를 후원했다.

상영회장에는 흥남 철수를 지휘한 당시 10군단장 에드워드 아몬드 소장(1979년 작고)의 외손자 토머스 퍼거슨 예비역 대령도 참석해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로스앤젤레스협의회, 설날맞이 경로잔치 개최



미국 로스앤젤레스협의회는 2월 19일 설명절을 맞아 관내 노인센터에 어르신들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하고 위문공연을 펼쳤다.



## 시애틀협의회, 북한인권유린 심각성 알려



미국 시애틀협의회는 2월 26일 북한 인권 전문가인 Suzanne K.Scholte를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 오렌지카운티-샌디에고협의회, 평화통일염원기도회 및 통일강연회 개최



미국 오렌지카운티-샌디에고협의회는 지난 3월 1일 부에나팍 갈보리선교회에서 3.1절 기념 '평화 통일소망 기도회' 및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평화통일연구소 김요한 소장은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 강연한 후, 미주 한인들이 남한과 더불어 어떻게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 덴버협의회, 한국전 참전용사 위로행사

미국 덴버협의회는 경기도 의정부 이미숙무용단을 초청해 2월 16일~27일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콜로라도에서 순회공연을 개최했다. 한국의 소리와 전통 춤을 소개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대구광역시  
근대화골목투어

그리고 마침내



큰 길에서 벗어나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과하는 길, 보통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폭이 좁은 길을 뜻하는 말, 골목. 때론 동네 사람들만 아는 지름길이자,  
 종종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한 곳. 자주 모습을 바꿔 간혹 낯설게 느껴지는 큰 도로와 달리  
 큰 사고만 없다면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키는 골목은, 길은 길이되 단순히 길만은 아닌 장소다.  
 그곳을 지나갔을 사람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월과 함께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봄을 찾기 위해 산과 들, 혹은 바다가 아닌 도심 속 오래 된 골목으로 향한 것은 그래서였다.  
 구태여 찾아 떠나지 않아도 어찌면 이미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지 모를 봄,  
 혹은 봄 같은 사람 또는 봄 같은 이야기를 만나고 싶어서... 오래된 골목,  
 그 안에 이미 오래 전 찾아온 봄을 만났다.



골목, 그 안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이야기

골목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골목을 지나친다. 그  
 러니 사실 골목투어를 위해 구태여 멀리 떠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봄을 품은 골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상도 중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골목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덕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 100  
 년 이상 된 근대건축물들이 여전히 붉은 벽돌을 반짝이며, 높다랗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물론 그 곁으로는  
 오래된 골목 역시 존재한다.



## 사랑 그리고 사랑, '청라언덕'

골목투어의 시작은 뜻밖었던 첫사랑의 이야기에서 출발했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위에 백합필적에', 푸른 담쟁이덩굴(靑蘿)로 뒤덮인 선교사의 사택이 모여 있다 해서 이름 붙여진 청라언덕. 고등학교 등하교 길이었던 청라언덕에서 사춘기 남학생은 종종 마주치는 한 여고생을 보고 첫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내성적이던 남학생은 끝내 말 한마디 못 붙여보고 그렇게 첫사랑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리고 훌쩍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아련히 남아 있는 첫사랑의 추억을 담아, 한 곡의 노래가 완성됐다. 바로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친숙한 '등무생각'이란 곡이다.



▲ 청라언덕 위 선교사주택

▼ 의료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챔니스 주택



▲ 은혜정원

기억을 더듬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언덕을 오르면 붉은 벽들로 지어진 이국적인 건축물과 마주하게 된다. 19세기 말, 대구에 터를 잡았던 파란 눈의 미국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주택들이다. 주택에는 스윗츠, 챔니스, 블레어 등 선교사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선교, 의료, 역사를 테마로 소규모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 스윗츠 주택의 기단(터를 반듯하게 다듬은 다음에 터보다 한층 높게 쌓은 단)은 일제치하에 강압적으로 허물어야 했던 대구읍성의 돌로 만들어 역사적 의미도 깊다. 또한 의료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챔니스 주택에서는 상아로 만든 청진기 등 이색적인 의료기구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붉은 벽들로 지어진 벽면과 스테인 글라스 창문, 유럽식 굴뚝과 한국식 정원이 어우러진 모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만큼 아름답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러 간다'는 비문처럼 낯선 타국 땅에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던 선교사들의 무덤(은혜정원)도 박물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 우리의 봄이 시작된 곳, '3.1만세운동길'



선교사주택 주변의 골목은 폭이 좁다. 더욱이 1900년대 이 길가는 솔밭과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그러니 일제의 엄중한 감시를 피해 대구 도심을 향해 행진하기엔 이만한 곳이 없었다. 1919년 3월 8일, 오후 2시 서문시장에 모인 계성고, 신명고, 대구고보, 성서고 학생과 일반 주민 등 800여 명은 이 길을 따라 도심으로 향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남녀노소 누구나 목이 터져서 이 땅의 봄이 오길 기원하며, 도심을 향해 걸었던 길.



선교사주택과 제일교회 사이로 난 90여 개의 계단 길에는 3.1운동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한 전시물을 볼 수 있으며, 골목 한편으로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요즘은 어지간한 국경일이 아니면 보기 힘든 태극기가 파란 하늘아래 힘차게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코끝이 찡해온다. 비로소 봄은 실감한다. 단순히 햇살이 따뜻해서, 혹은 담장 아래 봄꽃을 십사리 찾을 수 있어서가 아니다. 이 땅의 봄, 우리의 봄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 빼앗긴 들에도 마침내 봄이 왔다, '계산성당, 이상화 고택'

그리 길지 않은 계단을 차분히 걸어 내려오면 뽕족한 침탑이 인상적인 계산성당과 마주하게 된다. 얼핏 서울 명동성당과도 비슷한 분위기의 계산성당은 현존하는 1900년 대 성당건축물 중 유일한 것으로 건물 자체가 중요한 문화재이기도 하다. 특히 故 김수환 추기경이 사제서품을 받은 곳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와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 유명하다.



다시 성당 정문에서 왼쪽 길로 걷다보면 중절모에 검은색 코트를 갖춰 입은 시인 이상화의 벽화를 만나게 된다. 현대적인 고층건물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 친 한옥 두 채. 그 중에 한 곳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이상화 시인이 생전에 거주했던 자택이며, 맞은 편의 한옥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자산가 서상돈의 고택이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빚을 갚지 못하면 다시 이 땅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금가락지를 뽑아서 돈을 마련했던 사회운동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 바로 서상돈 선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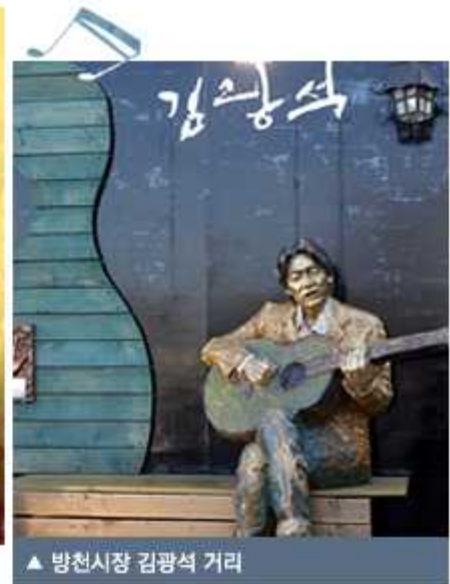
비록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시인은 끝내 생전에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 새 봄이 찾아왔다. 나란히 마주 보고 있는 두 고택의 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워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봄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두 분의 염원 때문이 아닐까.



## 대구 사과, 대구 미인 그리고 김광석

대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과와 미인밖에 없다는 것은 이 땅의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학창시절 은사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여전히 대구란 지명과 연상되는 단어가 많지는 않다. 다만, 요즘엔 추억이란 이름의 단어 하나가 더 늘어나긴 했다. 바로 김광석 거리다. 방천시장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지역으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로 조성되어 김광석과 관련한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평범했던 골목길은 김광석의 노랫말에 맞춰 다양한 벽화들이 채워져,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최근 유행했던 복고의 영향으로 드라마, 영화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소개돼 더 친숙한 김광석의 음악도 십사리 들을 수 있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 전 세계 여성을 사로잡은 한복 드레스! 인기 폭발!!

이택중



결혼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뷰리플 데이네요! 이 한복 드레스를 입고 싶어서, 결혼 날짜도 미뤘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한복 드레스가 잘 어울리시네요! 결혼 축하드려요!  
지금까지 박술기였습니다.



네, 정말 한복 드레스가 우아하게 잘 어울리네요.  
자 다음 소식은 요새 한국 드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레스  
쟁탈을 위한 신경전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현장에 나가있는 김생문 리포터!



네, 시상식의 꽃은 바로 여배우들의 드레스인데요, 최근 한국 전통  
복식인 한복 드레스가 인기를 끌면서 드레스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  
전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스카 시상식, 칸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전 세계 여배우들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한복집이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한국 특유의 단아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전 세계 패셔니스타들을 사로잡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복 드레스가 입고 싶다고 싸움은 안됩니다.



자, 여배우분들 줄을 서시오! 줄을!!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평안도 사람들이 즐겨먹는 밝은쟁이볶음은 평안도와 백두산 주변에서 나는 고사리과 나물인 밝은쟁이와 돼지고기, 고추가 한데 어우러진 음식이다.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밝은쟁이를 대신해 고사리로 요리를 만들어 보았다.



### 요리재료

요리재료 : 밝은쟁이(고사리로 대체) 300g, 돼지고기 30g,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양념장 : 간장 2큰술, 소금 반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파  
1큰술, 식용유 1큰술, 후춧가루약간, 통깨약간



### 요리방법





1 물에 불린 고사리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낸 후 건져서 4센티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한다.



2 돼지고기는 기름을 제거하고 얇게 채를 썰어 준비한다.



3 홍고추와 풋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둔다.



4 분량의 간장, 소금, 다진 마늘, 다진 파 등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5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다가 고사리와 고추를 넣고 살짝 볶은 후 양념장을 넣고 다시 한 번 볶아낸다.



6 완성된 밝은쟁이볶음을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낸 후 통깨를 뿌려 장식한다.

 요리연구가 나유신

## 음식은 크고 먹음직스럽게

밝은쟁이(고비)가 많이 자라 밝은쟁이골이라는 지명이 있는 평안도. 동쪽은 산이 높아 험하고, 서쪽은 서해안이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며 평야 역시 넓다. 또한 중국과의 교류가 잦아 사람들이 성향 역시 진취적이고 대륙적이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음식 역시 한 입 크기로 잘라 보기에 좋게 만드는 서울의 요리법과는 달리 크고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름진 육류음식을 즐기는 동시에 밭에서 자라는 콩과 녹두를 이용해 냉면과 만두, 녹두빈대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음식의 간은 대부분 심심하고 맵지 않도록 조리한다.





## 할머니의 소원인 통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글\_ 메모리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님의 소망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며, 뉴스프로그램과 남북을 보여주는 향토 프로그램을 즐겨보셨죠. 결국 통일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머니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따뜻한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핏줄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곁에서 도와주며, 모두 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의 착한 이웃들! 파이팅하시고, 함께 노력해서 염원하는 통일의 날 함께 이루어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올해는 꼭 통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_ 통일대박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일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그간 단절되었던 한민족의 화합과 중흥을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적 침체에 접어든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수불가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뜨거운 감성만으로 일을 진행하기엔 전반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때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곳에서 보다 정확하고 냉정한 정보를 접하고 하나씩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통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통일은 누구 한사람의 숙제가 아닌 우리민족 모두가 힘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글\_ 명랑소녀

새해가 밝았네요. 한 살, 한 살 먹어갈 수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되요. 그와 동시에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져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보내는 날이 더 이상 없도록 가족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무뎠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요. 통일은 누구 한사람의 숙제가 아닌 우리민족 모두가 힘을 합해야만 해결 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요. 새해엔 우리 모두 통일에 더 많은 관심 갖길 원해요. 북한이탈 주민여러분, 북한친구들 모두 파이팅해요 ^o^



##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글\_ 가요미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통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가깝지만 먼 그곳에서,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리움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먼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하나 되었으면 하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 의지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또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통일은 우리모두의 염원이며 바람입니다

글\_ 그날을 위해

통일은 절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며 바람입니다. 2015년에도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계속될 것이니 더 많은 분들의 참여 계속 부탁드립니다.

# 통일 한반도

## 청사진을 그린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 올미년!  
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글로 표현해 주세요.  
모두가 공감하고 희망하는 '통일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요~~



**응모기간** 2015. 03.18 ~ 2015.04.05

**발표예정일** 4월 셋째주

**응모방법** A4용지 0.5~1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서술 후 파일첨부로 응모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3만 원권



파일첨부  
응모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북한말 알아보기

웹진 기사를 통해 배우는 북한말!  
26호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기사를 읽으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 힌트보기

Q “거기(북한의) 산은 다 뽀뽀한 ○○○○(민둥산)예요.  
다 깎아가서 영농지로 만들었어요”에서 민둥산을  
표현하는 북한말은 무엇입니까?



**응모기간** 2015. 03.18 ~ 2015.04.05

**발표예정일** 4월 셋째주

**응모방법** 하단에 비밀댓글로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30명 **시상내역** 던킨도너츠 미니도넛 6팩

###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이벤트 당첨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행복한 통일로 가는길'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yroh@kornu.ac.kr	노호룡
2	**sskcjstk@naver.com	이한나
3	**n0558@naver.com	이은혜



### '통일 사다리타기 퀴즈'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abobbiny@naver.com	해보비니
2	**6371654@hanmail.net	행복하자
3	**33535@naver.com	시양
4	**dlqj456@nate.com	주니즈
5	**inbjbj@nate.com	상군하하
6	**dgml3326@naver.com	임세
7	**jk0820@hanmail.net	투투맘
8	**sgusrb88@naver.com	이루어지리
9	**rwns9726@nate.com	낙똥
10	**oy@naver.com	김재호
11	**lee1019@naver.com	오디
12	**aelarael@naver.com	니닝

13	**kicute@naver.com	미스에버
14	**lmw20@naver.com	박주현
15	**eng0205@naver.com	담미
16	**bybae1@naver.com	용용
17	**rdenho@naver.com	정원
18	**pdori@nate.com	통일은 대박
19	**1982ko@naver.com	고꼬
20	**bopbyeya22@gmail.com	서린
21	**eam620@naver.com	네로
22	**rk_jk@hanmail.net	박진규
23	**ltime@hanmail.net	별사탕샤르르
24	**0718@hanmail.net	소원
25	**ollek7@naver.com	행복꼬마
26	**0hong@naver.com	300hong
27	**qc100489@naver.com	봄이왔어요
28	**shan1046@naver.com	아침빛소리
29	**07860@naver.com	지혜
30	**bayho@naver.com	윤쓰리



###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bheart@naver.com
2	**j4509@naver.com
3	**ewworld@hanmail.net
4	**monism@naver.com
5	**m1595@hanmail.net
6	**in7902@naver.com
7	**kjh@naver.com
8	**oneahn@naver.com
9	**nkek00@gmail.com
10	**tt1220@naver.com
11	**j-mij@hanmail.net
12	**ngt0@hotmail.com
13	**41ysm@naver.com

14	**ddgga@naver.com
15	**huje@naver.com
16	**cacadpu@hanmail.net
17	**aru2@naver.com
18	**ack1020@naver.com
19	**wej12@naver.com
20	**e0826@naver.com
21	**bb3@naver.com
22	**anghuni2@naver.com
23	**31415@naver.com
24	**072@naver.com
25	**nyawon@hanmail.net
26	**king67@naver.com
27	**minam@naver.com
28	**pigender@naver.com
29	**ngjh98@daum.net
30	**dyg@naver.com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